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06.(제 3호)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성별성과 성별 인식 격차*

김홍미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양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수탁) 서울시 학대예방·피해 지원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2022, 책임)

『(수탁)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 책임)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2021, 책임)

‘조건만남’, ‘원조교제’, ‘(성적)거래’ 등의 이름으로 범죄성을 감추고,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해 온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아니다. 지금의 긴박함은 이 문제의 새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피해규모, 그리고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담’을 포함하여 이들에게 확대되는 디지털성범죄 ‘문화’와 그 영향력에서 온다. 가해자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등장(증가), 성별화된 피·가해자 분포,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 집단의 정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 그쳐서는 안되며, 정책대응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감과 디지털성범죄 인식, 피해실태를 젠더관점에서 분석하고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과제를 제안하였다.

• 연구방법

- 설문조사: 서울시 거주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4,012명 설문조사

(성별·학교급별·권역별 할당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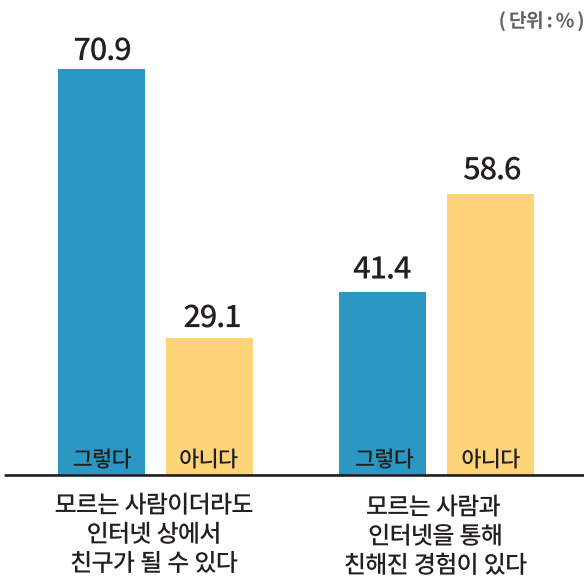
- 피해자 및 종사자 면접조사 17명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1년에 수행한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김홍미리·정다운, 2021)의 연구 결과를 일부 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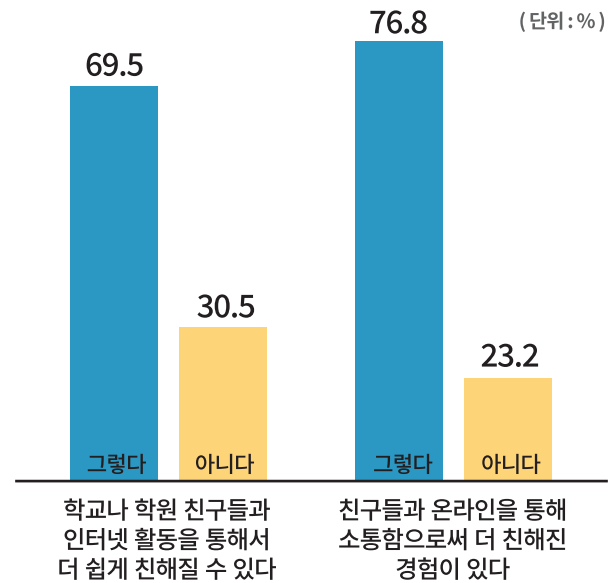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맺기 장소로서의 온라인

- 온라인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장소로 확인됨. 아동·청소년의 70.9%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41.4%는 실제로 친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또한 응답자의 76.8%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학원이나 학교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또래 간 친밀성을 쌓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온라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줌.

| 그림 1 |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의사 및 경험



| 그림 2 |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장 의사 및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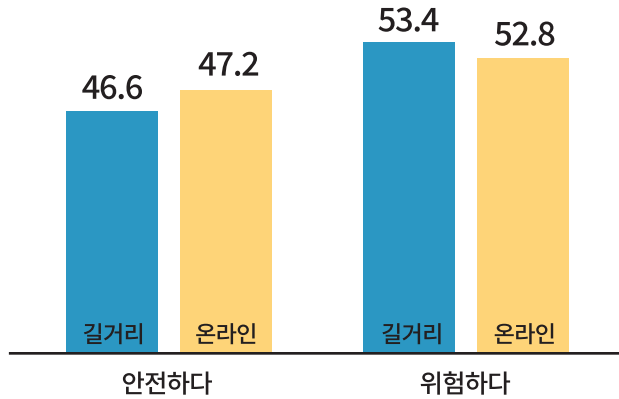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감과 성별 차이

-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익숙하게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있으며, 상대방이 ‘인증’을 거칠 경우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임. 또한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어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믿음은 친밀함을 가장한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시도를 용이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음.
- 한편 아동·청소년은 ‘길거리’(46.7%)보다 ‘온라인’(47.2%)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험을 강조하는 범죄(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작용일 수 있음. ‘낯선 사람’의 위험을 강조해온 교육은 정작 지배와 통제라는 폭력의 속성을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친밀함을 가장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특히 일련의 절차를 통해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는 온라인 ‘인증문화’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보임.

| 그림 3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안전에 대한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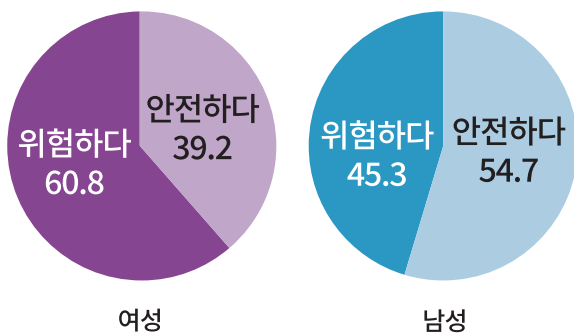
(단위: %)



- 온라인 공간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온라인을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60.8%, 남성이 45.3%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여성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을 위험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증가했고(초등 57.7% → 중등 60.3% → 고등 63.3%), 남성은 중등 시기 소폭 상승하지만, 고등학교 시기에 오히려 감소함(초등 46.2% → 중등 46.6% → 고등 43.7%). 즉 여학생은 초·중·고로 갈수록 온라인을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남학생은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온라인이 안전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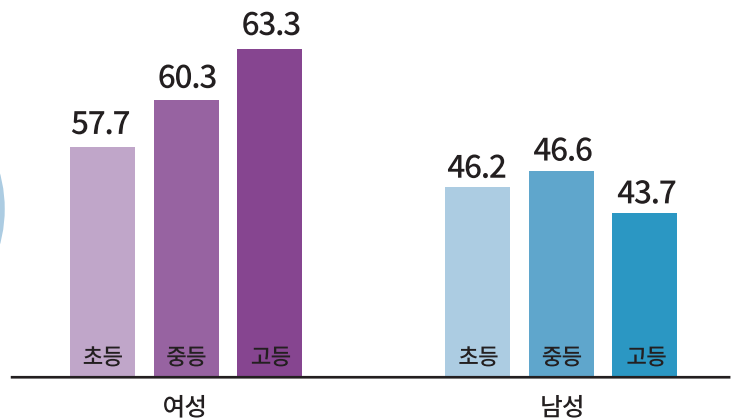
| 그림 4 | 온라인 안전감 성별비교

(단위: %)



| 그림 5 | '온라인 공간은 위험하다' : 성별 (위험한 편이다+매우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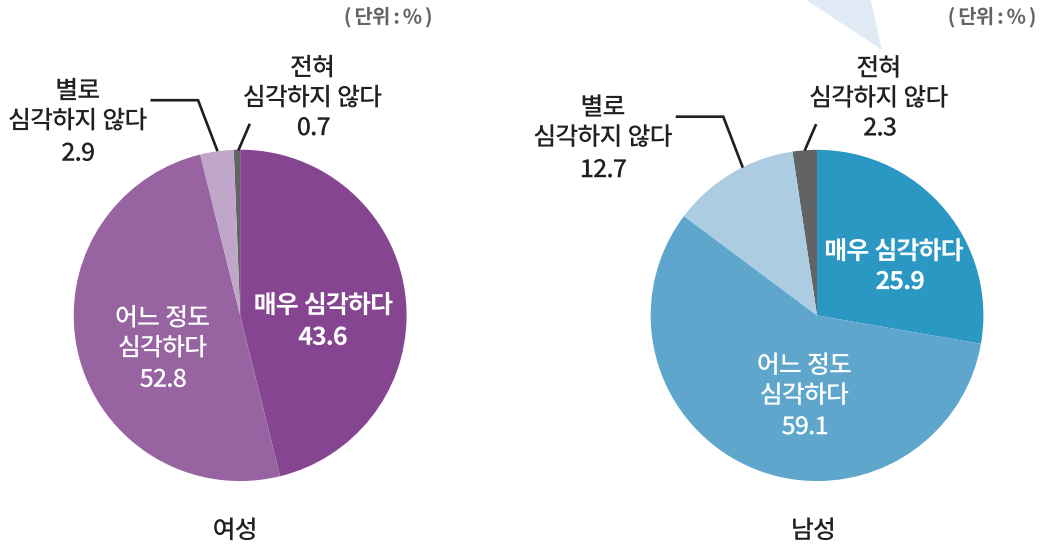
(단위: %)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성별 인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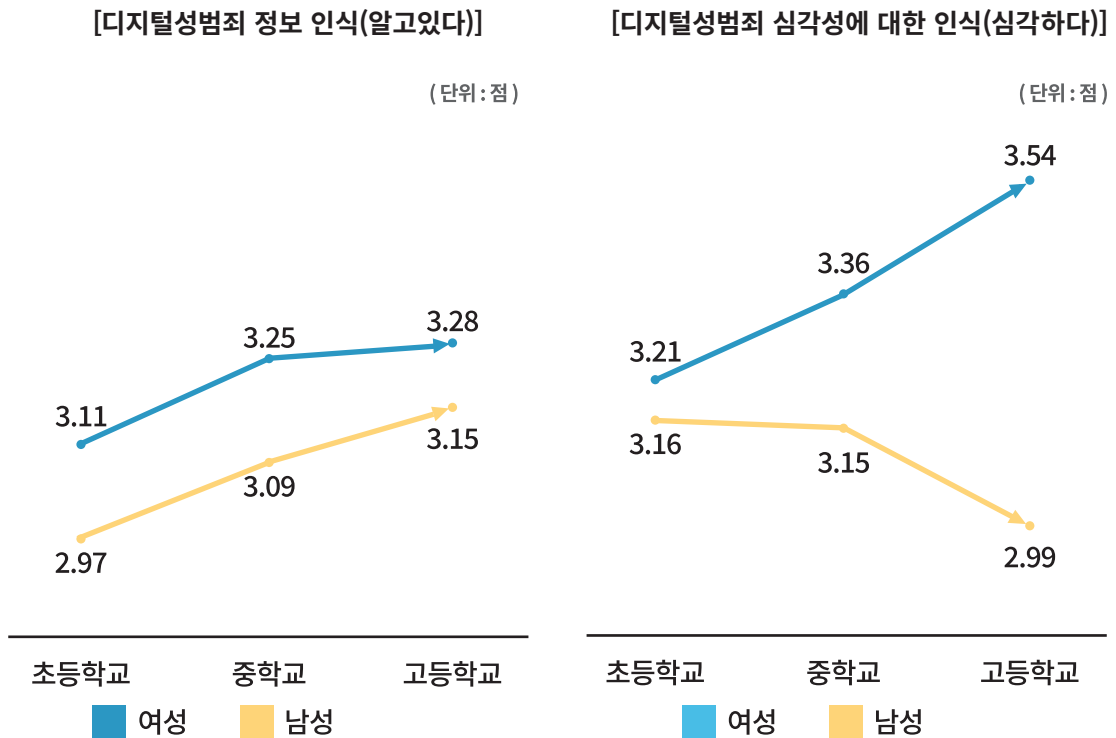
- 고등학교 시기에 오히려 낮아지는 남성의 위험성 인식은 디지털성범죄 인식 변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성범죄 인식을 [정보인식(알고있다)]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심각하다)]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이며 복합적으로 변화함.
- 이들은 먼저 ① 디지털성범죄를 '문제'로 인식하긴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보다는 '어느 정도 심각'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그림 6 |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성별



- 또한 ②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디지털성범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초등 2.97점 → 중등 3.09점 → 고등 3.15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도는 오히려 낮아져(초등 3.16점 → 중등 3.15점 → 고등 2.99점), 고등학교에 가서는 ‘알고 보니(정보인식 평균값 3.15점)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심각성 인식 평균값 2.99점)’는 방향으로 이동함. 이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학교급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정보인식이 높아지고(초등 3.11점 → 중등 3.25점 → 고등 3.28점),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동반 상승하는 것과는 대조적임(초등 3.21점 → 중등 3.36점 → 고등 3.54점). 즉, 남성과 달리 여성의 인식은 ‘알면 알수록 정말 심각하다’는 방향으로 변화함. 그 결과 초중고로 갈수록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는 더욱 심화됨(초등 0.05 → 중등 0.21 → 고등 0.55).

그림 7 | 성별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인식 변화



- 이러한 성별차이는 디지털성범죄와 스스로를 어떠한 관계로 설정하는지와 관련됨. 즉 어떤 위치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임. 여성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치에서 일관된 문제의식을 보인다면, 남성 아동·청소년은 초등과 중등시기 피해자 위치에 비교적 공감하지만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피해자에 공감하는 위치에서 보다 멀어짐.
- 성별에 따라 다른 아동·청소년의 이러한 인식변화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아동·청소년은 성적 언어/성적 이미지 전송 피해를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며(56.4%), 성적 거래를 요구받거나(4.3%),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는(3.8%)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남성보다 빈번하며, 특히 성적 언어/성적 이미지를 전송받거나 전송을 요구받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았음.

표 1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직접경험 빈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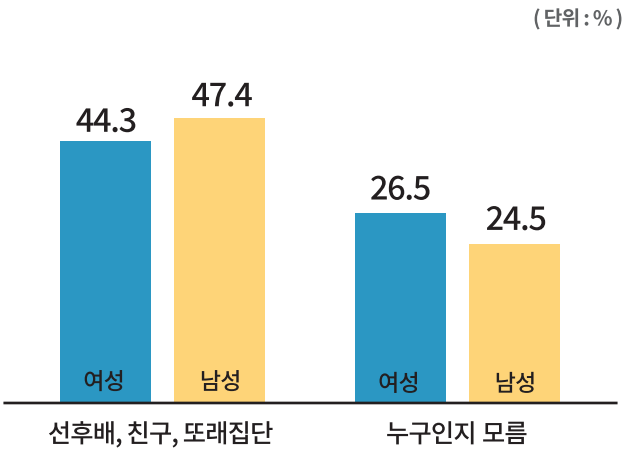
단위: 건(%)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대분류	성별		전체	
	여성	남성	건수	비율(%)
온라인 수업 중 성적 테러	28 (35.4%)	51 (64.6%)	79	2.5%
성적언어/성적이미지 전송	926 (52.4%)	842 (47.6%)	1,768	56.4%
성적 이미지 전송요구	89 (74.8%)	30 (25.2%)	119	3.8%
성적거래 요구	65 (48.1%)	70 (51.9%)	135	4.3%
성적이미지 생산(지인합성)	4 (50.0%)	4 (50.0%)	8	0.3%
원치 않는 성적 채팅방 초대, 성적이미지 유포, 유포협박	77 (51.7%)	72 (48.3%)	149	4.8%
일방적 연락, 만남요구, 스토킹	487 (57.2%)	365 (42.8%)	852	27.2%
불법촬영	9 (40.9%)	13 (59.1%)	22	0.7%
합계	1,685 (54.2%)	1,447 (46.2%)	3,1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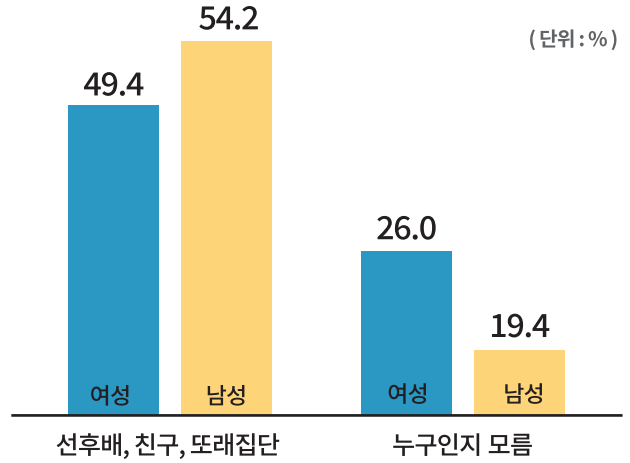
성적 침해를 시도한 상대방: 여성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남성은 또래집단과 선후배

- 한편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아동·청소년의 직접 피해 빈도는 여성에 비해 적긴 하지만(여성 54.2%, 남성 46.2%), 피해 빈도만으로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심각성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움. 즉 피해빈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 피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성적 침해를 시도한 상대방 및 피해 이후의 감정 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음.
- 남성 아동·청소년은 선후배나 친구 또래집단으로부터, 여성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침해 사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성적 언어/성적 이미지 전송’ 피해는 또래집단으로부터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여성 44.3%, 남성 47.4%).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신하는 비율(26.5%)이 남성보다(24.5%) 높음. 원치 않는 성적 채팅방 초대 및 유포·유포협박을 한 상대방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됨.

| 그림 8 | 성적언어/성적이미지를 전송한 상대방: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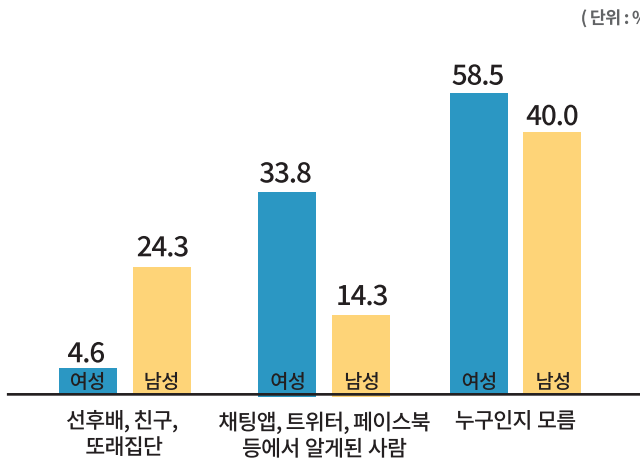


| 그림 9 | 원치않는 성적 채팅방 초대, 성적 이미지 유포/유포협박 상대방: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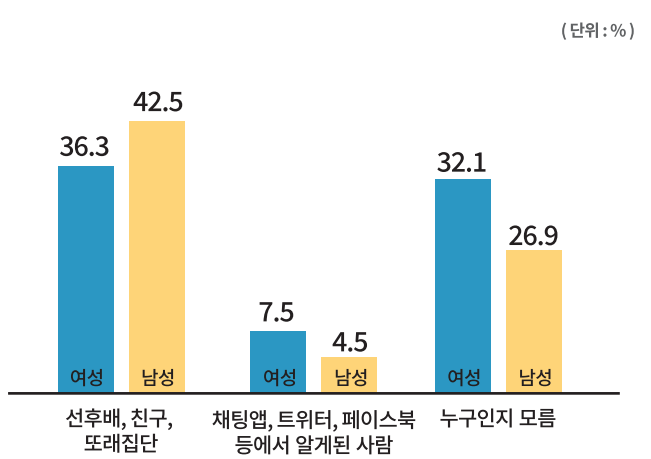


- '성적거래 요구'에서 직접피해 인원은 여성이 더 많고(여성 58명, 남성 33명), 경험 빈도는 남성이 더 많음(여성 65건, 남성 70건). 이때 여성에게 성적거래를 요구한 상대방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33.8%)'과 '누구인지 모름(58.5%)'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 아동·청소년은 각각 14.3%, 40.0%로 여성의 절반 수준임. 대신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거래를 요구한 상대방에는 선·후배, 또래집단(24.3%)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4.6%)의 다섯 배를 넘는 수준임.
- 요컨대 여성 아동·청소년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느닷없이 겪는 피해 비중이 높고, 남성 아동·청소년은 또래나 선후배 사이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성을 매개로 행하는 집단적 '놀이'로 오인하는 형태를 보임.

| 그림 10 | 성적거래를 요구한 상대방: 성별



| 그림 11 |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한 상대방: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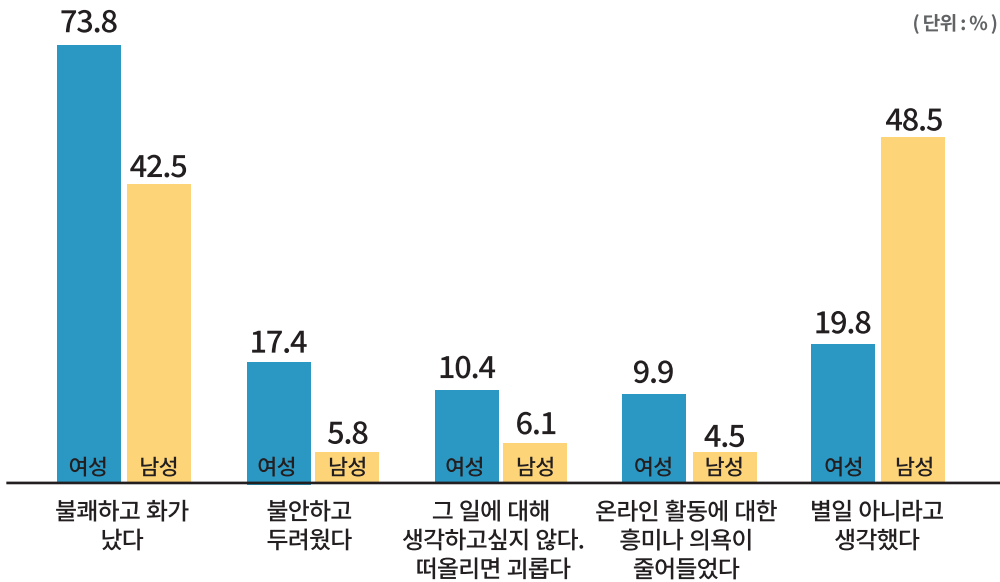


- 남성들의 집단적인 놀이문화가 디지털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함. 하나는 남성 아동·청소년이 '놀이'의 이름으로 왜곡된 남성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성(타인에 대한 성적침해의 주체 되기)을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남성성(성적 주체 되기)과 혼동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성적 침해가 가할 수 있다는 점임. 더욱이 성적 침해를 경험 한 후 감정상태에서 남성 아동·청소년의 절반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하고 있어, 남성 아동·청소년이 서로를(그리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집단적 '놀이문화' 형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와는 다른 정책 개입이 요구됨.

피해 후 감정상태 : 여성은 불쾌감과 불안, 남성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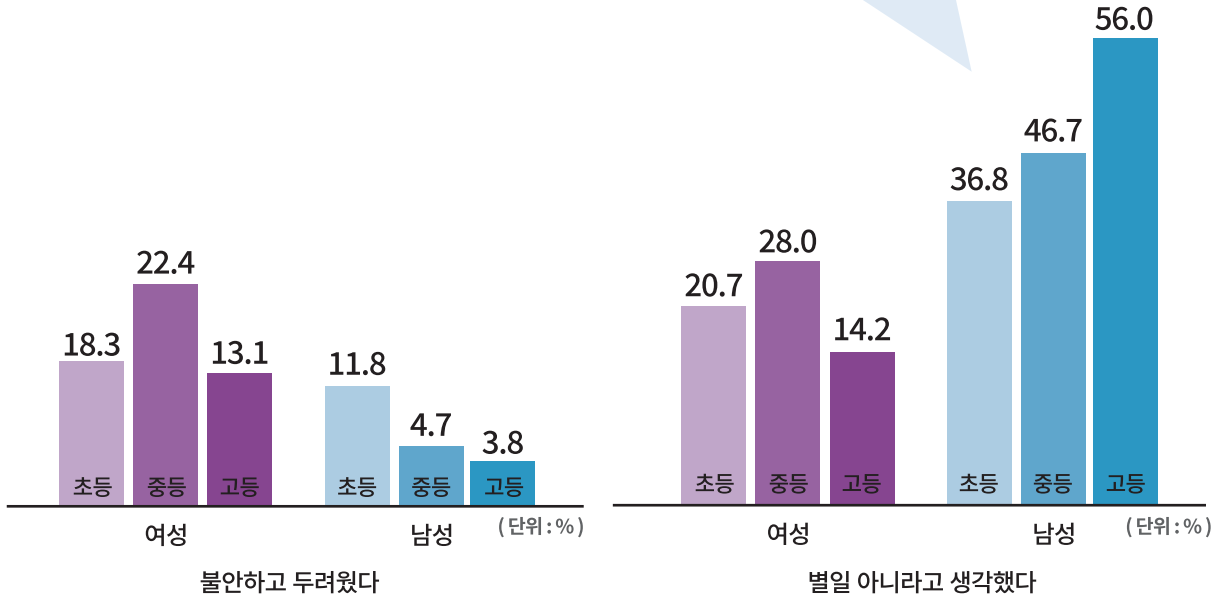
- 온라인에서 경험한 성적 침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 후 감정상태를 살펴 보았음. 피해 후 감정 상태는 가해자가 시도한 성적 침해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됨.
- 남성 아동·청소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48.5%로 가장 높았고, ‘불안·두려움’은 5.8%로 여성(17.5%)보다 낮았음. 여성은 ‘불쾌하고 화가 났다’가 73.8%로 가장 높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19.8%로 남성보다 현저히 낮음.

| 그림 12 | 디지털성범죄 피해 후 감정상태: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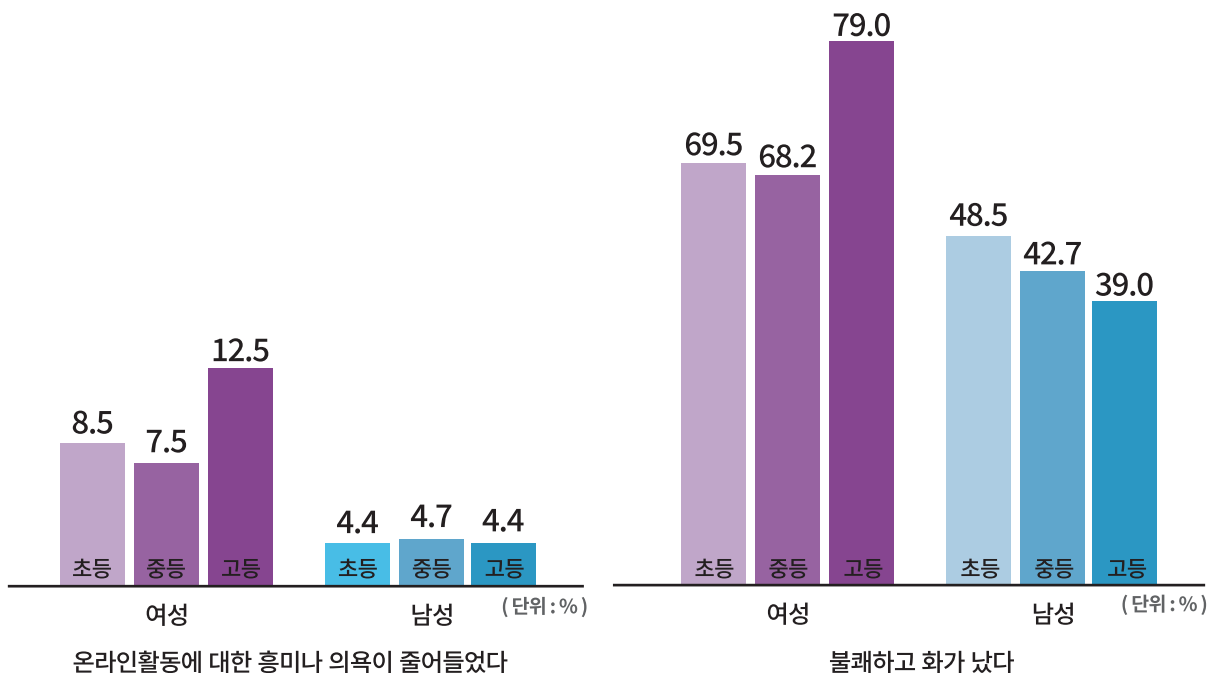
- 피해 후 감정을 성별·학교급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남. 남성 집단에서 ‘불안·두려움’은 중학교 시기에 급격히 감소함(초등 11.8% → 중등 4.7% → 고등 3.8%). 이후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의 ‘불안·두려움’은 3.8%까지 떨어져 6개 집단(성별×학교급) 중에서 가장 낮았음. 반면에 남성 집단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학교급에 따라 증가해 남자 고등학생이 6개 집단 중 가장 높았음(초등학교 36.8% → 중학교 46.7% → 고등학교 56.0%). 요컨대 남학생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불안·두려움’은 현저히 낮아지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짐.
- 여성 아동·청소년은 전 학교급에서 남성보다 ‘불안·두려움’이 높게 나타남. 불안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중학교 여학생으로, 성별·학교급으로 구분한 6개 집단 중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높았음(22.4%). 반면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남성의 절반 이하로 낮아짐. 이는 ‘불안·두려움’이 중학교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남성의 감정상태 변화와는 상반된 양상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에서도 성별에 따른 학교급별 차이가 확연함. 고등학교 집단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급증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고등학교 시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중등 집단의 절반값으로 떨어짐.
- 요컨대 여성 아동·청소년은 중학교 집단에서 ‘불안·두려움’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모두 높았음. 이후 고등학교 집단에서 불안과 두려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모두 감소함. 이후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후 주요 감정은 불쾌감과 분노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림 13 | 디지털성범죄 피해 후 감정상태(1): 성별×학교급



- 불쾌감과 분노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여학생(79.0%)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남학생 임(39.0%).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후 느끼는 주요 감정은 불쾌감과 분노이며(류버리, 2021*), 이후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이동할 수 있음. 또한 구체적인 피해로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활동을 중단하거나 망설이는 등 활동 반경을 축소시킴. 가해자의 성적 침해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지표는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나 의욕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인데, 해당 문항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초등 8.5% → 중등 7.5% → 고등 12.5%)은 남성보다(초등 4.4% → 중등 4.7% → 고등 4.4%) 두드러지게 높았음.

| 그림 14 | 디지털성범죄 피해 후 감정상태(2): 성별×학교급



* 류버리(2021), 「'성적추차심'에서 빠짐까지:정해진 감정은 없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안전감’ 및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에서 보이는 성별 차이와 긴밀하게 관련됨. 남성 아동·청소년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을 안전하게 느끼고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확장해가는 주요한 장소인 온라인 공간의 성별성을 보여주고 있음.
- 즉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온라인은 애초 남녀 모두에게 놀이터로 여겨지지만, 여성 아동·청소년에게는 점차 성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남성 아동·청소년에게는 또래간 성적 놀이와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가 경계 없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감.
- 이런 가운데 남성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는 또래집단 내 성적 ‘놀이’에 뒤처지지 않거나 앞서가는 것이기 쉽고, 이러한 놀이에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동원되기 쉬움.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여성을 소비하는 “왜곡된 남성성”이 개입될 때,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은 ‘성적 대상’의 위치에서 주체로 살아남기 위한 분투로 채워짐.

성별·학교급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 필요

- 이상의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정책에서 성별·학교급별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아동·청소년이 성적 안전성에 위협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성별·학교급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성장기 남성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남성성’의 습득과 디지털성범죄가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만큼, 타인에 대한 성적 침해를 남자다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함. 여성 아동·청소년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느닷없이 성적침해를 겪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웃리치** 기능 강화와 대응기관 계정 인증표기 등 지원체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웃리치(outreach)는 서비스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나선다는 의미로,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온라인 아웃리치는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활동으로 ‘사이버 아웃리치’라고도 불림.